

복 받은 공화국의 여성들



2016년 촬영



2016년 촬영



3월 8일은 국제부녀절이다. 이날을 맞아 공화국의 여성들과 인민들은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여성운동을 개척하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여성들과 후대들의 삶의 태양이시고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조선여성운동의 시련을 열어놓으셨으며 그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건강,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광범한 여성들을 망라하는 여성동맹을 창립하시고 세상에 없는 남녀평등헌법을 발표하시으로써 우리 여성들에게 고귀한 정치생활권을 안겨주시고 사회정치생활에 멋있게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인 여성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시고 빛내이시며 여성들이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작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여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자》를 비롯하여 여성운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을 마련해주시였다.

또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여성군인들과 군인가족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여성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주는 여성들을 나라의 영웅으로, 참된 애국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조선여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정성기를 펼쳐가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드시여 여성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해마다 국제부녀절을 의의있게 기념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에 웃고 감격에 울었는가.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어머니날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어머니날에 꽃방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들에게 드리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새집들이를 할 때에도 교원, 연구사들에게 무엇을 더 마련해주셨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은 밤에도 계속 생각하시다가 여성들을 위하여 그릇조를 마련하시여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신 어머니 그 사랑.

한창 물고기선별작업을 하는 여성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어보이시며 그들을 향해 한번 또 한번 저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 둘도 없는 여성중시의 정치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이 높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처럼 그릇 잘 돌보는 여성운동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 그렇듯 창창한 앞날을 자랑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의 여성들은 이 세상 제일 존엄높고 긍지높은 여성들이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사는 공화국여성들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남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 2016년 5월 서울 연남동에서 열린 “여성이야 범죄가 아니다” 집회 모습. “여성이야 범죄가 아니다” 집회 모습. “여성이야 범죄가 아니다” 집회 모습.

남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 2016년 5월 서울 연남동에서 열린 “여성이야 범죄가 아니다” 집회 모습. “여성이야 범죄가 아니다” 집회 모습. “여성이야 범죄가 아니다” 집회 모습.

갈수록 비참해지는 사회적 처지

남조선당국이 집권기간 《실질적인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남조선여성들의 처지는 갈수록 비참해지고있다고 한다.

우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일반남성이 받는 임금보다 여성에 비해 보통 30% 정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 구성원국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정부》의 《성평등정책》지연으로 남녀갈등만 더욱 고조되고있다. 《정부》는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중되는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것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의 비율은 2019년에 63.6%로서 2010년(41%)보다 22.6%나 대폭 늘어났으며 직장내성의 20.2%가 가정일과 경제난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여성들속에서 혹심한 생활난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으로 하여 독신으로 사는 1인세대가 급속히 늘어나 지난해 6월 현재 여성 1인세대는 333만 9000세대로서 2000년 이후 2.6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살기에 너무 힘들고 사회적경과 조건도 보장되지 않았고, 여성들이 홀로 살아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을 선택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강력범죄와 여성자살건수도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남조선당국이 공식 밝힌데 의하면 성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스스로 토로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18.5%에 달하며 가정폭력건수는 5만 270여건으로서 2011년의 6 880여건보다 7.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여성자살률은 10만명당 15.8명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구성원국들 중 첫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중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2017년에 11.4%, 2018년에 13.2%, 2019년에 16.6%로서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날로 악화되는 여성들의 처지를 두고 남조선의 각계층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이 힘으로 얼룩지고있다.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항상 두려움을 안고있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국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흥성이는 《은하수》 화장품매대

3.8국제부녀절을 맞아 제 흥성이 있는 것은 화장품과 화장품매대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8국제부녀절을 앞두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며 화장품을

안겨주려 꽃상점과 화장품매대를 찾았다. 평양화장품공장 화장품전시장도 이날을 앞두고 손님들로 흥성거렸다. 전시장안에 들어서니 개성고려인삼화장품을 비롯하

여 머리칼의 윤기를 더해주는 머리칼영양액과 휴대하기 편리한 쉐링, 향긋한 과일향이 나는 공기정화향의 향수, 얼굴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주름방지크림 등 각종 화장품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색깔이 세분화되고 질 좋은 입술연지와 분크림을 비롯한 색조화장품들과 효능 높은 치료용화장품들, 명시하고 편리하게 만든 화장도구, 화장도구가방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은하수)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30여가지의 (은하수) 화장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데 이어 이 제품이 세계적주제로 되고있는 액

정상태의 결정을 이루고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액정화장품은 사람의 피부구조와 유사하기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드러운감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의 피부침투성이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 훨씬 높아 호평을 받고있습니



《은하수》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30여가지의 (은하수) 화장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데 이어 이 제품이 세계적주제로 되고있는 액정상태의 결정을 이루고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액정화장품은 사람의 피부구조와 유사하기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드러운감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의 피부침투성이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 훨씬 높아 호평을 받고있습니

《은하수》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30여가지의 (은하수) 화장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데 이어 이 제품이 세계적주제로 되고있는 액정상태의 결정을 이루고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액정화장품은 사람의 피부구조와 유사하기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드러운감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의 피부침투성이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 훨씬 높아 호평을 받고있습니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돈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자본주의사회와 너무나도 편이한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국제사회의 경탄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에서 환상세계가 아닐수 없다. 자본주의가 흥내버수 없는 현실이 펼쳐진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여성들의 천국, 여성들의 리상국이다.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싶다.》

이것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아일랜드의 한 여성 인사가 터친 격정의 웨침이다.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은 《봉건제도와 일제강점하에서 자기들의 운명을 울 밑에 시들어가가는 봉성화의 처량한 모습에 비추어보며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조선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축복의 꽃속에 묻힌 여성

들에게 남편들이 《사랑하시라. (안해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끼고 위해주고있다. 이것은 여성존중의 몸소가 정착된 조선의 모습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여성 인권문제전문가는 《오늘 여성차별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서 여성들의 운명을 위협하고있다. 여성문제해결의 진정한 답을 찾자면 여성들의 아름다운 화원인 조선의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로세아의 인터넷트럼프지는 《조선여성들은 나라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다. 나라를 위한 길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고 하면서 인성미로 가정과 사회의 화목, 단란한 정서를 더해주는 조선여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그들은 조국변역에

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신조로 간직하고 가사보다 국사를 우선시하며 더 좋은 일을 앞당겨오고있다.》고 전하였다.

네발의 인터넷잡지 《네팔 루레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사회제도에서 사는가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실현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착취와 무권리, 분쟁과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미덕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여성들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품은 천만부모의 정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고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값높은 존엄을 지니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이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집권기간 《실질적인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남조선여성들의 처지는 갈수록 비참해지고있다고 한다.

우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일반남성이 받는 임금보다 여성에 비해 보통 30% 정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 구성원국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정부》의 《성평등정책》지연으로 남녀갈등만 더욱 고조되고있다. 《정부》는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중되는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것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이들을

우리가 안겨사는 사랑의 틀

3.8국제부녀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생각이 절로 깊어진다.

국제부녀절이 생겨난 때로부터 한세기이상 흘러갔지만 아직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속에 시들어가고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여성들은 여성중시, 여성존중의 사랑과 정의 넘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시며 이 땅우에 여성중시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평범한 여성교육자인 나 도 공훈높고,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떠받들리우며 복 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이 름없는 한 여성교육자의 성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걸음걸음 보살펴주시고 시대의 전형으로까지 내세워

지금 나의 심장은 우리 여성들, 우리 교육자들을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나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라시는데로 학생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참다운 인재로 키워내는 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나가겠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교장 리경애

이 모시었던 꿈만 같은 그 순간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평범한 근로자들을 로력혁신자, 공로자로 내세워주시며 뜻깊은 9월의 경축행사에 불러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자리에도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랑의 축배잔을 짚어주시실 때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교장 리경애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올리며 삼가

세상의 남녀 영미 특점매의 천국

독재문답 재로동로 황유미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의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를 보장받고있는가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끼고 내세우는 공화국에서는 여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 여성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정책들에 의하여 여성들의 권리가 참담케 실현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여성들에게 자질과 능력, 회담에 따라 일자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특히 로동법규에 의하여 여성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을

시킬수 없으며 첫머리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여성들에 대해서는 야간로동이 금지되고있다.

또한 여성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근로여성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중시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13살미만의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지고있는 여성로동자들에게 하루

아이를 낳은 후 모든 산모들에게는 산골이 차려지며 생방등이, 네쌍둥이임신부인 경우 산원에 입원한 후부터 퇴원할 때까지 코기류, 알류 등의 영양식사를 보장받고있다. 또한 아기들은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키워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마다 봄, 가을철이면 유선중, 유선암을 조기적발하고 대책하기 위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전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예방검진을 진행하고있다.

이렇듯 공화국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과 혜택속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

본사기자